

##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노인과 복지에 관한 고찰

이 미 란<sup>†</sup>

고신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강사

### A Study on the Elderly Woman and Welfare in Aging Society

Lee, Mi-Ran

Kosin University Dept. of Family Life Welfare Instructor

#### Abstract

An aging society in which the proportion of the aged of a society is growing faster than the of the young is becoming an worldwide phenomenon owing to low birth rate, the upgraded medical art and so on. Korea is one of the most rapidly aging societies in the world today. Since aging society is total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society in the many field, potential problems must be expected and countermeasure must be considered. One of the potential problems it may cause is the issue of supporting subject of the aged. Parent-supporting and welfare for the aged become important social issues. Especially the supporting of the aged woman is more important issue because of their longer average life than man and their exposure to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ir welfare is very important issue of social welfare system.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practical counter measure to the supporting of the aged woman. These studies can be divided into traditional approach which insists on the family supporting and modern approach which asserts government(or social) supporting. Comprehensive literature study reveals that both of government and family are responsible for the supporting of the aged woman.

Key words : Aged Woman , Welfare, Aging Society

## 1. 서 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흔히 21세기의 시대적 특징을 '정보화의 시대' 또는 '세계화의 시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제 21세기는 이들 보다 사회적인 파장이 훨씬 더 큰 '고령화 사회의 시대'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 특히 선진국들에서는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때의 고령화 사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사회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인문제의 심각성이 날

<sup>†</sup> Corresponding author, M.P : 011-557-1157 e-mail : mrlee@cvnet.co.kr

리 인식되면서 학계에서나 일반사회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관심이 널리 고조되어 가고 있다. 많은 외국에서는 고령화의 속도가 비교적 천천히 이루어진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이 같은 노인문제는 노인 개인이나 그가 속한 가족의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문제이며, 때문에 더욱 지대한 사회적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각한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속도와 인구구조의 변화추세를 감안한다면 조만간 노인복지와 부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될 것이 틀림없다. 이미 앞서 경험한 선진국들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중시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바로 노인복지와 노인부양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 문제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다양한 노인문제가 급격히 야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이에 관심을 지니고 불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다각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보다 심층적으로 이에 관한 연구를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연구과제는 '여성의 세기'로 전망되는 21세기에 즈음하여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다. 여성노인문제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고령화되고 있는 노인인구 중에서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여성노인은 나름대로의 다양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남성노인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때문에 앞에서 논의한 바 있는 노인문제는 이제 여성노인문제가 되고 있으며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어 가고 있듯이 여성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다. 6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르는 경제구조가 변하고 사회구조가 크게 변하고 혈연을 중시하던 가족제도가 약화되면서, 여성노인문제는 단순한 여성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중요하고 심각한, 그리고 시급한 사회문제로 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도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도 훨씬 많은 기간을 살지만, 그러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기를 홀로 쓸쓸히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빈곤화'라는 말이 설명하듯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그들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복지는 개인적으로나 제도적 차원에서나 열악한 상태에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은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성차별과 '노인'이기 때문에 받는 연령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온 특별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들을 포함한 다양한 여성노인문제에 관한 연구는 일반적인 노인문제에 관한 연구보다도 더욱 소홀하며 빈약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인을 위한 부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책임론에도 문제가 있다. 이 부양책임 주체에 관한 이제까지의 논의는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 번째 관점은 노인 부양의 책임이 가족에 있다고 보는 논자들의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은 그러나 많은 논자들이 주장하고 있듯이 가족해체와 가족제도의 변화 및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그리고 부양에서 야기되는 경제적, 신체적 및 정신적인 부담 등으로 노인부양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이 주체가 되어 해결할 수 없게 되어 사회와 더 나아가 국가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시대에 따라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고 있으나 사회의 중요한 기본단위로서의 가족의 핵심적 위치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할 다른 어떤 사회적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 가족을 유지시키고 가족의 복지를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가족주의적 가치를 유지시켜왔기 때문에 가족은 여성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전제한 무한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는 공간이었다.

사회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가족구조는 다양화하고 여성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기대는 달라졌으나 가족구성원으로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는 안정과 사랑을 제공하지만 여성, 특히 기혼여성

에게는 노동이 요구되는 공간이다. 한국의 사회복지가 상당부분 '가족에 의한 복지'를 전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의한 가족구성원의 복지가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은 가사노동 전담자로 여겨지는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현재 시행되는 가족복지정책은 기본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요보호 계층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의 여성 및 가족관련 복지 정책은 가족내에서의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의 전담자라는 전통적 역할수행을 기대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상정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UN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당해 사회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 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 되는 사회를 고령사회(aged society)라고 정의하였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비율이 2000년도에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경 전체 인구의 14%를 상회할 것으로 보아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인식과 노인복지측면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보다 약 2배 이상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문제와 복지에 관심은 간과되어 왔다. 여성노인의 경우 평균 수명의 연장과 남녀평균 수명의 차이로 인해 무배우자 독신 기거와 유병율이 높은 한국여성노인은 경제적 빈곤, 고독감, 사회 활동의 결여 등으로 여전히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복지정책은 제도적 맹점을 극복하여 질적 서비스와 제도적 개선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노인들이 나름대로 은퇴 후 재취업과 종교 활동이나 자원봉사로 바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유·무료 실버 복지시설에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는 모습을 통해 한국의 노인세대들을 위한 복지제도의 시급성을 깨달을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도 인구, 가족,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양상으로 인해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유영주,2005). 우선 인구의 변화를 보면, 서구 유럽 국가들이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위기로부터 가족복지정책을 본격화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김주숙,2000), 인구변화와 복지는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우리사회는 최근 출산률의 감소로 인한 미래노인 부양 문제등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가족원의 수 못지 않게 가족의 형태변화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혼률의 증가로 한부모 가족의 증가, 독신가족 및 노인단독 가구가족의 증가등 우리사회 가족형태의 다양화는 기존의 가족복지정책이 가족문제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가치관 역시 변화하고 있어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부계직계가족이 더 이상 사회의 이상적 가족개념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최근 연구들을 통해(양옥경·김혜영,2001; 유계숙·유영주,2002; 이영숙·박경란,2002)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에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는 가족 내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가족 내 성역할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가족 변화와 여성정책의 방향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직적 관점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여성 및 고령사회 가족복지에 관한 고찰을 통해 한국여성노인과 관련된 복지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여성노인의 복지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및 노인복지연구에 다각적이고 심층적 정보를 제공하여, 여성과 가족복지 연구 분야의 진보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가족과 개인, 가족과 국가와의 관계를 보다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노인복지는 노인의 복지이면서 동시에 노인을 부

양하는 가족의 복지라 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자연적 수명을 산다면 노년기를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복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복지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적 상황에서 노인문제를 재조명하고, 전통적 가치관의 일탈과 핵가족 사회 부양의식 변화를 고찰하여 가족, 사회적, 국가적 해결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 고령화 사회의 복지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여성노인의 복지를 위한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또한, 선진외국의 복지제도를 간단히 살펴보고 거시적 안목을 제공할 것이다.

연구가 시도하는 목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현실적으로 직면한 노인문제, 그것도 여성노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남녀노소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사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고 가정이 될 것인가에 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다.

첫째로 고령화 사회에서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남성노인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여성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노인이 남성노인과 함께 속하고 있는 노인전반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노인 전반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점차 계속되어 상대적으로 볼 때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는 이에 비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반적인 여성관련 연구에서조차도 실로 미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둘째로 여성문제를 다루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성복지가 왜 여성노인들에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여성복지의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매우 미약할 뿐만 아니라 남성노인들에 대한 그것들보다도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진작하기 위해서이다.

셋째로 복지와 관련 하여 여성노인을 포함하는 노인부양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규명하려 한다. 여기서는 노인문제는 사회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과 구성원모두의 공동책임이며, 개인적(사적)인

것과 사회적(공적)인 것으로 구분될 수도 있는 전체를 가지고 접근한다. 아직 가족의 노인부양 기능이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 어떤 공적인 제도도 없으며 복지시설이 아무리 발달해도 가족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제 노인부양문제는 전통적 형태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해결방안을 요구한다.

넷째로 이와 관련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가족복지의 내용과 바람직한 방안의 탐색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보다 가족 지향적이고, 가족관계가 삶의 질과 생활만족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가족관계의 만족도는 여성노인의 만족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문제의 실상과 특히 여성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복지정책을 살펴 보며 미래 여성노인의 좌표를 점검해 보기로 한다.

##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문제분야별로 최근까지 관련자료, 즉 선행연구들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고찰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복지정책부문에서는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도록 하였다.

## III. 연구고찰

### 1. 한국사회와 노인문제

#### 1) 노인과 고령화 사회

현재 노인복지법(법률 제 0417호, 1989, 12,30.제정)에 의거 경로우대(제10조) 및 노령수당(제13조) 등 각종 수혜대상자를 65세 이상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에도 보호대상 노인의 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 인구도 14세 이상 64

로 정하고 있어 노인복지에서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로 통일되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약 7세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성 노인의 복지정책이 더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3). 통계청에 의하면 노령인구 65세 이상 중 여성노인 61.9%, 남성이 38.1%로 여성노인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2). 선진외국에서는 고령화 사회 7%에서 고령사회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5년, 일본 26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불과 22년 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보건복지백서, 2003).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처럼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나 대책을 수립할 시간이 그만큼 없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앞서간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면에서 선진복지정책에 대하여 사례수집과 분석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UN(1998)에서 발표한 세계인구추계에 의하면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5%선에 머물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율이 1990년대에는 6%를 넘었으며 2010년에는 7.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만큼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해 보면 북유럽, 일본,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 경제적인 선진사회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형 인구구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의 하나가 고령화인데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고령화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 2002)에 의하면, 14세 이하의 인구구성비율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반면에,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3.3%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5.0%로 증가 하였으며 2000년에는 7.2%를 접하여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더욱 놀라운 것은 동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은 2019년에 14.4%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0%로 본격적인 초 고령사회에 도달하게 된다는 전망이다.

또한, 노인에 대한 개념은 시대, 사회, 문화 그리고 학자에 따라 다소 달리 정의되고 있는데 티빗츠

에 의하면 그것은 세 가지 측면, 즉 ① 생리적 및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퇴화에 있는 사람 ② 심리적인 측면에서 정신기능과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사람 ③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사람이라고 정의되고 있다(김순자; 2001 재인용).

이 같은 '노인'의 개념에 관해 권육상(2001)은 보다 정교하게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 ①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조직에 있어 결손을 가진 사람
- ② 일상생활 자체가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 ③ 생활체의 기관이나 조직, 기능에 있어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 ④ 생활체와 적응성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 ⑤ 조직 및 기능저장의 소모로 인해 적응 감퇴현상 등이 있는 사람

이러한 연구는 무엇보다 70년대 초 부터 이루어진 선진국에서의 연구 보다 훨씬 뒤져 있어(최성재, 2001), 급속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전통적인 가족 중심주의의 퇴색, 노인부양을 가족의 책임으로 인식해오던 '효'규범의 약화, 사회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이 짧은 기간에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노인문제의 해결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통계청의 자료 (장래인구 추계결과, 2001/11)에 따르면 평균수명은 2000년의 75.9세에서 2010년, 2020년, 2030년, 그리고 2050에 각각 78.8세, 80.7세, 81.5세 그리고 83.0세로 지속적인 연장을 예측하고 있다.

## 2) 사회의 변화와 노인문제

노인문제의 발생원인으로 조홍식 외(2001)는 ① 노인인구의 증가 ② 노령화지수 및 노인 부양지수 외에도 ③ 소가족화를 들고 있으며, 오쿠마 유키코 (2000)는 노령화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생활의 곤란을 노인문제로 보고 이러한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

으로 ① 인구구성의 변화 ② 산업화 ③ 가족제도의 변화 ④ 노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들고 있다. 정옥제(2000)는 ① 개인적 요인 ② 가족적 요인 ③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박태룡(1999)은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구조의 변화 등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노인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관해 로소우(Rosow)는 산업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지위를 중심으로 ① 재산소유 및 통제권의 약화 ② 노인지식의 낙후 ③ 노인의 종교적 전통에의 연결 약화 ④ 핵가족화 ⑤ 노인의 생산성 약화 ⑥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적 유대감 약화 ⑦ 상호호의존성의 약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오쿠마 유키코:2000). 다시 말해서 이들 요인에 의해서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는 문제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장인협(2001)은 ① 노령화에 따른 소득의 상실 ② 질병과 건강상의 문제 ③ 역할상실 ④ 고독과 소외의 문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활의료수준의 향상으로 2000년도의 고령화 사회 진입과 아울러 인구의 도시집중화, 노인 공양 의식의 변화 및 핵가족 제도는 단독노인가구를 증가시켰다. 이에 가정내 노인의 지위가 저하되고 국가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노인복지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최경석,1990). 한국노인들의 특징이라면 노후에 대한 준비를 거의 못한 채, 고령으로 퇴직 후(55~60세 퇴직) 소득과 역할이 없는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입장에 있으며, 연금제도와 같은 노후대책에 필요한 사전교육이나 사회적 계도도 없었으며, 핵가족 제도에 밀려 부모공양정신이 희박한 가운데 노후를 맞은 현시점의 노인들이다. 현세대 자녀들의 부양의식이 쇠퇴하였고, 국가적으로는 노인복지에 대한 미온적 정책과 사회적으로는 실버산업 등 복지사업의 초창기로 말미암아 경제적·정신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제1 노인 세대라 볼 수 있다. 2001년 생산연령 인구(15~64세) 9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지만, 2019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5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한다(통계청,2002). 따라서 부양해야 할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활동 인구의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증가되어 세대간 불평등이 조성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고령자가 더욱 소외

되어 사회문제가 심화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997년 IMF라는 국가경제위기를 겪으며 더욱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경제적 빈곤계층이 증가되고, 이중 빈곤독거노인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 통계청 자료의 장래인구추계(2003)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낮은 출산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예상보다는 빠르게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같은 인구의 변동은 유소년(0-14세)인구의 감소에 의한 노동력의 부족문제, 노인부양문제 등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동력에 관해 살펴보면 유소년 인구(0-14세)는 2000년 총인구의 21.1%를 점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출산율감소로 인하여 2010년에는 17.2%, 그리고 2030년에는 12.4%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져 노동시장에 신규진입이 급속히 감소되며 또한 노년인구비율은 앞에서 살펴 본 대로 급속히 높아진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급속히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사회지표(2002)에 의하면 인구의 고령화는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1985;25억원, 1990;274억원, 1995;518억원, 2000;887억원)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연금재정의 안정적 운용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 노년부양비는 총 부양비 중에서 점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소년 부양비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노년부양비는 2000년에는 10.1%에서 2010년에는 14.8%로 그리고 2030년에는 35.7%로 증가하여, 노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급속히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이처럼 의존적인 노인을 증가시켜 사회전체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와 더불어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도 하나의 부담요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박태룡,1999)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권육상(2001)은 이러한 우리나라 노인문제를 여러 학자들의 견해와 종합하여 크게 6가지로 정리하

었는데, 경제적 빈곤문제, 건강문제, 심리·사회적 소외와 고독감 문제, 역할상실문제, 노인부양문제, 고령에 따른 여성노인의 사회문제이다. 노령인구 중 여성비율은 62%이상 이며, 70세 이상 노인 중 여성은 남성의 2배 이상으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소외라는 이중적 고통을 받는 여성노인문제에 특별한 배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2. 주요복지선진국의 특징비교

### 1) 선진복지특징

복지제도는 국가 지원 대 개인의 자립, 가족에 대한 지원방안, 근로의욕 고취 등 대립되는 가치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문제라 하겠다. 그러므로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체계가 정치, 경제 및 사회 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한다(최광현,2001)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유럽의 복지 체계를 4가지로 분류(이영찬,2000)하면, ①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및 핀란드: 복지제도가 고도로 발달한 형태, 최저수준보장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 나라의 복지정책, ② 독일, 오스트리아 및 중부유럽: 비스마르크 형태의 조합주의적 국가로 제도화된 복지국가로서 기본적 needs를 충족하면서 일정수준의 재분배를 실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나라, ③ 영국, 미국, 호주 및 뉴질랜드: 잔여적 복지국가, 최저안전망만을 제공하려는 복지체계, ④ 라틴계열의 국가들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및 이탈리아: 복지에 있어서 초보적인 수준의 국가들, 제도미비, 가족, 교회, 민간단체가 복지 공급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네 번째 계열에 속하여 복지국가정책에 있어 초보적인 국가군에 속한다(김미영,2002)고 본다. 복지국가의 역사를 연 영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1601년 빈민 구제법을 시작한 나라이며 1906년 사회 보장 제도로 복지 입법 추진과 1908년 연금 제도 도입, 1911년 국민보험법 도입 등 복지를 사회적 시민권의 하나로 정립했다는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모델이 되었고, 영국 성인 1/3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만큼 '평등과 통합의 원리로 일하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성공적인 현대 복

지국가의 모델이 된 스웨덴은 1913년에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연금제도를 적용 하였는데, 모든 계층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혜택 원리를 정착시켰으며,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사회복지와 보장을 지향, 소득의 사회화, 높은 세금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본주의 대명사로 일컫는 미국은 1933년 연방긴급 구호법과 1966년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보장법이 시행되었는데, 사회보험역할이 제한적이고 공적 부조의 비중이 비교적 크며 개인책임주의 이고, 지방분권주의로 주정부에 따라 다양하여 표준제도가 없고 사적 보장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세계 최고 장수 국가이며, 경제 선진국인 일본은 593년부터 구제 사업을 실시하였고, 1929년 구호법 제정,1946년 생활보호법 제정,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 1961년 전국민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실시하였으며,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형 체도를 택하고, 복지체계가 통합적이지 않고, 적용대상에 따라 분립된 체계로서 매우 복잡하고 불균형이 심하며, 선진 외국에 비해 GDP대비 복지예산이 적어 복지 수준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16혁명 이후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었고, 1962년 생활보호법과 재해 구호법을 제정, 1977년 의료보호법 실시,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1995년 전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사회보장의 추진방식을 사회 보험위주로만 하고 있어 소극적 집합주의의 초기단계(인경석,2000)라 볼 수 있다.

### 2)노인복지정책제안

우리나라 노인문제 원인의 공통된 연구결과 첫째, 가족 제도의 변화 즉, 핵가족화와 부양의식 저하, 둘째, 여성의 사회 참여율 증가, 셋째, 노인들의 의식변화, 넷째,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인 복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저소득층 위주가 아닌 모든 노인 대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한 노인복지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건강하고 일할 능력이 있

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나이와 건강에 비해 조기정년으로 인한 무노동은 국가적 손해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망에 관심과 이해를 높여 현 시설중심의 노인 복지에서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노인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망 구성이 요구된다.

### 3. 여성노인과 복지문제

세계고령화대회(World Assembly on Aging, 마드리드, 2002)에서는 세계적으로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것은 여성노인들이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한 성차별 문제가 노후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영란,2002)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인관련 정책이 여성과 남성 노인의 차이점과 특징을 파악하고 양성평등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경 노인 인구가 14%상회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늘날 노인인구 중에서 고령층으로 갈수록 여성노인 대 남성 노인의 비율이 3:1정도로 여성이 많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7세 가량 더 장수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가장 큰 고통은 빈곤으로 야기되는 경제문제이며 이것은 국가의 복지 정책과 재정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여성노인 가구주의 경우 국가의 도움을 받는 가구 수가 남성에 비해 4배 높고, 동거 가족원이 버는 경우 남성의 1/2 수준이나 비동거 가족원이 없어서 도와주는 형태는 남성에 비해 두 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란,2002). 75세 이상 노인 중 여성 노인은 무배우자가 88.4%로 10명 중 9명이 배우자 없이 남은 여생을 보내는 반면, 남성 노인은 4명중 3명이 배우자가 있어 고령노인일수록 여성노인의 수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평균수명은 세계적 추세이나 한국 여성노인의 경우 배우자와 이별·사별 후의 삶은 더 열악하여 남성노인 보다 낮은 수입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빈곤소외계층에 속하여, 국가적 도움인 공적 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가부장 제도하에 발생하는 전형적 현상이라 본다(이소희

외,2002).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으로 부양체제의 변화와 노후대책미비, 경제적 의존성과 관계의 단절 등이라 보고 있다(남정림,1999:김인숙,2001:권육상,2001:김미영,2002).

부양책임의 주체에 관하여 먼저 개인주의 복지측면에서 보면, 한국여성노인은 경로효친사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고, 농경사회 중심으로 각 개인, 가족 구성원, 친지 그리고 이웃의 책임이었다. 물론, 옛날엔 노년기가 짧아 부모 공양의 기간이 길지 않았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사회의 대가족 제도라는 변경할 수 없는 구조 안에 국가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가족(자녀,큰며느리)-여성에게 있었다. 그러나, 최근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자료(김정석,2001)에 따르면, 노인 부양책임은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고 했으며, 소수만이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이처럼 세월의 변천과 함께 가족 부양관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집합주의 입장에서 보면,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부양의식 퇴화가 사회부양책임론으로 이전되는 분위기에 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전통적 한국형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는 가족부양(사적부양)이 노인 부양 책임에 대하여 그 1차적 책임이 있고, 사회 또는 국가는 2차적 책임이라는 복지마인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재의 빈곤여성노인들에게는 과도기적 인 복지정책방안으로서 특별기구 및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집합주의적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소외되어 있는 빈곤여성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조기에 수립,시행하여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성인지적 노인복지 종합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4. 부양과 복지

실증적 연구들은 부양에 관하여 다소 상이한 결론을 내리고 있었으며,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비교적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주부양자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은 바로 여성들이다. 또한 인구학적 특성으로 노년기 장기요양보호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집단도 여성 노인들이다(최성재,1997).

둘째, 노인부양은 도덕적 정당성에 있어서 우월한 위치에 있지만, 주부양자가 '며느리'가 되는 전통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부양부담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권육상,2001).

셋째, 도덕률의 권고적 성격은 희석되어 가고, 의무적 성격으로만 남게 되는 경향이 있다(한국여성개발원,2001).

넷째, 노인은 가능한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부양하려는 자세와 노력을 하게 된다(최성재,1997).

다섯째,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공적인 사회 부양의 문제로 해소되고 해결되어야 한다(박영란,2001).

부양에 대한 연구에서 이가옥(2000)은 유일한 결론은 없으며 상반된 두가지 관점을 구분하며 당위성과 함께 내포한 한계점을 전개하고 있다. ① 가족이 노인복지/부양의 일차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며, 국가는 가족의 이러한 기능수행의 보조적인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관점 과 ② 노인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현대사회에는 가족이 일차적인 책임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사회적, 국가적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관점.

정경희(2001) 역시 표현은 다소 다르나, 노인을 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대립되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본다. ① 가족주의적 관점; 가족이 의존적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 가족주의적 시각에서는 국가가 사회보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족부양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불필요의존을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② 집합주의적 관점; 의존적인 가족구성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 집합주의적 시각에서는 사회적 보호제공을 탈 가족화 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순남(2000)도 마찬가지로 표현은 다소 다르나 부양에 대한 관점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한국적 상황에 충분한 이유와 합리성을 설명하

고 있다. ① 전통적으로 내려온 '효'사상에 바탕을 둔 가족제도를 정부, 사회적 차원에서 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펴서 새롭게 발생하는 노인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유지토록 하려는 견해와 ② 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되는 노인의 지위의 하락을 전제로 하고, 서구사회에서처럼 사회보장을 강화함으로써 노후보장에 대처해야 한다는 견해.

따라서 이상 연구자들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요약 설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노인복지/부양의 주된 책임은 가족에 있다(가족복지의 관점).

둘째, 가족해체와 가족제도의 변화 및 가족부양기능의 약화 그리고 부양에서 야기되는 부담 등으로 사회(국가)가 주된 주체가 되어야 한다(사회복지의 관점).

우리나라 노인들, 특히 여성노인들은 나머지 인생을 자녀들에게 의존하기를 원하지만, 오늘의 젊은이(성인자녀)들은 노인의 복지문제를 국가가 해결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피부양자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인 모든 부양의 측면에서 가족이 선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의 99.7%가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별거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로 인하여 가정내 노인보호인력의 부재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종래의 전통적인 가족에 의한 노인보호를 대체하고 보완해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정옥재,2000)하다.

가족, 지역주민, 사회단체, 종교단체, 기업,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가 노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공동책임(고양곤, 1999)을 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균형 되고 조화로운 역할분담을 의미한다.

따뜻한 애정과 정(情)이 넘치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공적인 책임주체의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보호에는 애정과 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가족이외의 사회전문기관의 보호는 2차적이며, 그 1차적인 책임은 가족이 막아야 한다(박충선;1990)는 것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21세기의 가족은 애정이 충만된 집단으로는 생각 되지 않으나 애정이 없을 때, 가족은 소멸될 것이지만, 가족이 존재 하는 한 가족에 대한 보호행위는 애정이 기본이 된다(서병숙,1997). 노인복지 시설과 서비스가 아무리 발달하여도 가족과의 관계는 노인의 삶에 있어서 중추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으며, 공적인 것들이 자녀와 손자녀들과의 만남과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대신 할 수는 없다(박영란,2002).

특히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 보다 더 오래 살기 때문에 그 만큼 성인자녀들과의 관계를 오래 갖게 됨으로서, 남성노인들 보다 가족관계가 더욱 중요하며, 사회적 역할이 거의 주어지지 않은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가족, 특히 성인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가족의 역할이 여성노인들의 삶의 질을 가능함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노인부양의 책임을 전적으로 사회(정부, 국가)에만 의존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도 염려된다. 더 말 할 나위 없이, 현재와 같은 가족구조와 그의 기능 하에서 전적으로 가족에게 노인부양의 의무를 지우는 데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또, 노인 자신들 중에도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살고자 하는 노인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앞서 본 여러 연구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노인 스스로도 자녀의 부양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살아가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증가함을 지적하고 있다. 점차 경제적 여건만 허락된다면 자식과 별거하겠다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자녀에게 의존하겠다는 기대감도 감소한다(박재간,1996;김미경,2000;은기수,2001;김두섭,2001).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자식들이 노인들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을 노인들이 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경향은 사회변화와 더불어 노인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함이 시대적 요구이자, 불가피한 현실이 되어 감을 나타낸다.

부양복지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Daly,2002)들은 돌봄(care) 혹은 보살핌 노동(carework)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사회적 성격과 구성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통하여 부양의 바람직한 정책적 해법을 찾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의 보살핌(돌봄) 노동은 국가와 가족,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국가에서 수행되는 사회정책들은 여성에게 모성의 책임과 보살핌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보살핌 노동의 성편중 현상을 결과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여성의 노동참여를 저해하는 여성노인빈곤화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과 동시에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해소가 대안적 요소로서 필요하다. 그러나, 성별분업 문제는 개인의 수준이 아닌 사회전반적인 '남성적 노동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살핌노동을 개별가족에 대한 여성개인의 책임으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전체가 함께 져야 할 부담으로 인식하고, 이를 정책을 통해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전제는 보살핌 노동이 개별 가족에서 수행되는 사적인 책임이 아니라, 전체사회 구성원의 일상적·세대적 유지 및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라는 인식의 전환이다.

#### IV. 결론 및 제언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개인으로서의 나'와 '관계 속에서의 나'의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개인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실현하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감으로써 삶을 풍요롭게 살고자 원한다. 가족은 개인과 사회와의 중간적 위치에 처해 있으면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되고 상호의존하면서 통합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는 토대를 제공한다(유영주, 2001).

이처럼 사회체계의 유지와 사회복지정책을 고려함에 있어 가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가족 또는 가족중심주의가 개개인의 삶의 중심축으로 사회의 구성논리이며 사회문화의 중심원리이므로 '가족의 전체성(wholeness)'에 초점을 두고 하나의 단위로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과 여성복지정책이 연구되고 제안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 및 노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정책과 노인복지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통합적 시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도 불과 얼마되지 않았으며, 그 중에서도 여성노인문제에 관한 인식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여성은 높은 의존성과 관계지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특히, 빈곤 여성노인문제는 첫째, 서구사회와 달리 한국에서의 가부장적 사고와 남존여비 의식이 아직도 현재하는 사회속에 발생하는 여성노인의 권리 부재로 인한 경제적 빈곤 및 건강문제가 심각하고, 둘째, 여성노인들은 장기간 홀로 배우자없이 생을 보내며, 유배우자인 여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을 돌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셋째, 여성노인의 비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현저히 높고, 남성노인에 비해 유배우자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노인인구의 고령화는 이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전지구화로 번지는 하나의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의 고령화 사회는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사회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혁명'이라고 말해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고령화사회진입은 다른 선진국들 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의 증대로 인해,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문제는 더 이상 노인 개인이나 그의 가족의 문제로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선진 외국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노인부양과 복지에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중시해야 할 문제들임을 알게 된다. 늦게나마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이들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령화되고 있는 노인인구 가운데서 여성, 즉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들 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과는 다른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평균수명이

로 보아 남성노인들보다 더 오래 산다거나,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성차별과 노인이기 때문에 받는 연령차별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라면 '여성노인문제야 말로 사회문제'가 된다. 따라서 여성노인의 문제가 해결되면 남성노인을 포함한 노인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된다는 뜻이 된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부양과 복지가 주된 관심이 되고 그에 관한 연구가 주된 것이라면, 이들 관심과 연구는 여성노인에게 초점을 둔 여성노인의 부양과 복지가 되어야 함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본 연구의 주제를 이에 관련 시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위기로 닥친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생활과 문화를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노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문제들이 내일의 노인이 될 우리자신(성인자녀)들의 자화상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구성을 위한 대안 모색의 현실적 접근과 부양복지에 관하여 서구에서 이미 논의 중인 국가주도형, 시장화 모형, 가족 친화적 모형의 보살핌(돌봄)모델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규정하고 수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한국적 부양복지의 차별성을 준비하고 결합시켜 나가는 방식도 요구된다. 준비된 노년은 황혼도 아름답다고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중심은 첫째로 현실적으로 직면한 노인문제, 그것도 여성노인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둘째로 여성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셋째로, 선행연구를 고찰하는 문헌연구와 또한 통계청 자료, 연구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 투고일 : 2005년 10월 16일

##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2004), 인구 및 주택센서스.  
 구자순(1990), "한국여성노인의 실상과 대책: 한국여성노인사회세계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가을.  
 권육상(2001), "한국의 저소득 노인의 의료복지 연계

- , 2001 하계 국제학술대회.
- 김경호(1997),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3호,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 김두섭(2001),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 한양대학교 출판부.
- 김미경(2001), "복지국가의 여성정책과 정부 역할에 관한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사회 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수정(2002), "복지국가 가족지원체계의 구조변화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박사논문.
- 김인숙 외(2000), 여성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 김정석(2001), "노후부양주체로서의 질에 대한 척도 구성", 김두섭 편.
- 김주숙(2000), 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스칸디나비아 연구 창간호, 237-274.
- 김혜경(2003), "가족정책과 젠더관점의 결합을 위한 연구: 서구복지국가의 보살핌정책체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여성연구, 65호, pp.31-65.
- 남정립(1992), "여성노인의 빈곤화 원인과 정책에 관한 여권론적 접근법", 여성연구, 제10권 4호,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2002), "여성 노인 문제의 현황과 복지정책", 여성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충선(1990), "한국여성노인의 실상과 대책:여성노인의 삶에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가을.
- 보건복지부(2004),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양옥경(2002),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한국인의 복지 의식 연구: 서울지역 기혼자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학, v 51, 2002. 11.
- 오쿠마유키코/노면근(2000)공저, 노혜련역, 노인복지혁명, 예영커뮤니케이션선.
- 유영주(2005), 한국의 여성 및 가족정책의 변화, 명지대 여성가족생활연구, 9집.
- 윤종주(1998), "우리 나라 노년인구의 성장추이 및 현황", 한국노년학, 제18권.
- 윤홍식(2005), "가족정책의 성통합적 재구조화; 노동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4).
- 이가옥(2000),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세계노인의 날 기념 세미나 자료집.
- 이석규(2002),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 계획", 노인복지연구, 통권 17호, 가을.
- 이소희 외(2001), 여성복지, 형설출판사.
- 이수진(2001),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복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찬(2000), 영국의 복지정책, 서울: 나남출판사.
- 이우현(2001), "일본의 고령자 고용대책", 2001 하계 국제학술대회.
- 장인협·이혜성·오정애(2003), 사회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개정판.
- 장인협·최성재(1988),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경희(1997), "여성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 45-50,
- 정무장관 제2실 (1989), 노인정책.
- 조병은(1996), "한국여성노인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여성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 최선화(2000), "여성 노인", 여성복지론, 서울: 나남출판사.
- 최성재(1995), "한국의 노령화와 사회정책", 서울대학교 사회발전 연구소 주최 국제학술대회.
-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부양의 식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9호.
- 최혜경(2000),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부양의 방향", 노인복지연구/ 겨울호.
- 최희경(2000), "가족내 노인돌보기에 대한 여성학적 문제제기", 여성연구논집, 제11집, 한국여성연구원.
- 통계청(2004), 사회통계조사결과-가족. 복지. 노동부 문.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4), 한국노인의 생활과 의식 구조.
-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5), 노인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 여성실업자 및 실직자 가정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 한국여성개발원(1989), 여성노인의 복지지원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 한국여성개발원(1993), 여성노인.
- 한국여성개발원(2001), 한국가족의 변화와 여성의 역할 및 지위에 관한연구.
- 홍승아(2003), "보살핌노동의 사회적 성격과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9권, pp.179-210.
- Aiken, L. R. (1995), *Aging ; Introduction to Gerontology*, Sage Publ.
- Baltes, P. & Baltes, M.,(1990), *Successful Aging*: Cambridge Univ, Press.
- Beckett, J. O. & R. L. Schneither,(1993), "Older Woman", in Schneither, R. L.& Kropf, N. P.(eds.), *Gerontological Social Work : Knowledge, Service Settings and Special Populations*, Nelson-Hal Publ.
- Daly, Mary (2002), "Care as a Good for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cy* v. 31, 2.
- Daly, Mary (2003), "Governance and Social Policy," *journal of Social Politics* v. 32, 1, pp. 113-28.
- Dwyer, J. W. and R. T. Coward(1992), "Gender, family and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Gender, Families and Eldercare*(eds), Newbury Park: Sage.
- Fengler, A. P. & N. Danigels(1982), "Residence, the Elderly Widow, and Life Satisfaction", *Research on Aging*, 4, pp. 113-135.
- Garland, Diana S (1992), *church Social Work: An Introduction*, Louisiell: North American Acsw.
- Gilbert, Neil (2001), "Productive Welfare and the Market Economy: Korea's Enabling State." 보건복지부, 생산적복지 국제심포지움 자료집.
- \_\_\_\_ (1970), "Who speaks for the poor?,"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6(6).
- Hwang, John C (2001), "A Study on Low Income Nursing Home foundation and Management", 2001 하계 국제학술대회.
- Joseph Cellini (ed.)(1979), *Older Women In The City*, Department for the Aging ,City of New York, ARNO Press.
- Kwon, Huck-Ju (2001), "Income Transfer to the Elderly in Korean and Taiwan," *journal of Social Politics* , v. 30, 1, pp. 81-93.
- Meyer, M.(1990), "Family Status and Poverty among Older Women: The Gendered Distribution of Retirement Income in the United States." *Social Problems*, v.37, no.4.
- Moony, Gerry (2003), "Evaluating New Labours Welfare Reforms," *reviews, journal of Social Politics* , v. 32, 3, pp. 294-96
- Piachaud, David and Sutherland, Holly (2001), "Child Poverty in Britain and the New Labour Government" *journal of Social Politics* ,v. 30, 1, pp. 95-118.
- Rake, Katherine,(2001), "Gender and New Labours Social Politics," *journal of Social Politics* , v. 30, 2, pp. 209-31.
- Riley, M. W. & Foner, A. (1968), *Aging and Society*, vol 1,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Rosaw, I. (1974), *Socialization to Old Ag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pitze, G. et al.(1994). "Middle Generation Roles and the Well-Being of Men and Women", *Journal of Gerontology*, : Social Science(3).
- Streib, G. F. & Beck(1980), "Older Families: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pp. 205-224.
- Taylor-Gooby, Peter and Hastie, Charlotte,(2001), "Paying for 'World Class' Services: a British Dilema," *journal of Social Politics*, v. 32,2, pp. 271-88.
- Thompson, W. (1984), "Effects of Berevement on Self Perceptions of Physical Health in Elderly Widows and Widowers", *journal of Gerontology*, 39.
- Veit-Wilson, John (2002), "Researching Poverty and the Poor," *journal of Social Politics*, v. 31, 3, pp. 537-44.